

사설

한국불교 세계화 또다른 가능성

'모든 만물은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불구하고 한국 불교계의 비구니스님 위상은 아직 차별적이다.

그럼에도 한국 비구니스님의 존재는 지금 세계 종교계와 학계에서 독특한 위치로 주목받고 있다.

4일부터 나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동양학대회에서 한국 비구니스님 단이 집중조명을 받은 것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는 2년 후 '한국 비구니스의 선 수행과 선행'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는 합의로 이어지고 있다.

불교 사상의 위대함이 평등사상에 있다면, 종교계 안 남녀 성직의 평등은 무엇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아닐 수 없다.

과 함께 비구니스 단 자체에서의 계율 이행과 수행 등에 보다 철저한 자기 검증 또한 필요할 것이다.

뿌리지 않고는 거둘수 없다

불국토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32차 연수회에 참석한 어린이법회지도교사 41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직기간이 채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45%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불교는 철저하게 인과법을 가르치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불교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선점 당했다는 점이

다. 유치원, 학교교육, 사회복지사업, 놀이문화 등등 해방 이후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시급한 문제는 어린이 법회의 교육 및 활용에 대한 불교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며, 어린이 지도자 전문가의 양성이다.



템플스테이 기간중 통도사에서 2002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그림 예정인 '월드컵 만다라' 대표작인 불화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이다.

외교사절 직지사서 템플스테이 5월11~12일

조계종 포교원, 예약시스템 가동·안내문 제작

외국인 만다라 그리기·인경 등 준비 분주

월드컵 기간(5월 20일~6월 30일) 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전통사찰에서 숙식하며 불교문화를 체험케하는 템플스테이(Temple Stay)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과 31개 지정사찰들이 막바지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템플스테이를 주관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스님)은 숙박 예약 시스템 월드인(www.worldinn.com)을 가동시키고, 7개 국어로 된 템플스테이 안내 팸플릿(15만부)을 제작했다.

실무자 워크숍을 열어 숙박비용을 1박 2일 기준으로 5인 이하 작은 방은 5만원, 5인 이

상 큰 방은 3만원으로 확정하고, 19~20일 외국어 자원봉사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 지었다.

31개 지정 사찰들 역시 손꼽아 준비로 분주하다.

통도사는 불교문화 전문 성보박물관을 둔 사찰답게 외국인 관광객 2002명이 참여하는 높이 11m, 폭 7.32m의 '월드컵 만다라

(曼荼羅) 괘불(佛) 그리기 체험을 제공한다. 또 해인사는 대장경 경관 인경(印經) 체험 프로그램을 구광루에서 실시하고, 목재 채취부터 판각까지 경관 제작과정을 소개한다.

이밖에도 △갑사=판소리, 승무, 사물놀이 체험 △대사사=차별견학 및 산행 △동화사=서각 체험 △묘각사=법화경 사경 △불원사=영산재 관람, 단청 실습 △승광사=선사의 대담 △전등사=수묵화 그리기, 세계 민속의상 접기 △조계사=불교미술 비록시장 △직지사=태극권, 법문, 한자공예 △탑주심인당=심인수행 체험 등 저마다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2002 월드컵 성공기원 전국불교 대법회 2천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공동취재단

"화해·협력...월드컵 성공 기원"

2천여스님 국립극장서 전국불교 대법회 열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가 주최하고 조계종이 주관한 2002 월드컵 성공기원 전국불교 대법회가 9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2천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의 축원을 시작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종단협의회장 정대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도들이 앞장서 인류화합의 대추제인 월드컵을 원만하게 회향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비웃음이니 전세계인이 축하하는 월드컵 축제도 하나 된 마음으로 맞이하길 때 평화와 자비가 함께할 것"이라고 법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차사에서 "우리 민족 대표문화인 불교문화를 간직한 불교계가 앞장서 전세계인들에게 한국이 문화강국을 느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의 기원문에 이어 2천여 참가자들은 월드컵을 통해 △민족의 유구한 전통문화 알리기 △세계 일류국가 도약 △세계인류 화해와 평화의

5년 이상 해당분야 종사 비구에 한해 직능직 종회의원 자격이 부여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9일 회의를 열고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후보 자격 기준 및 선출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키로 결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임후보자

해당분야에 5년종사 직능직 종회의원 자격

기준 및 선출기간, 선출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고, 해당분야 임후보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하는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임후보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임후보자 자격기준 및 선출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본지 359호 2면 기사 참조>

김원우 기자

대추제가 되도록 노력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원우 기자

"예산부족" 문화재 보수지원금 지급 난색

내소사등 6곳 한푼 못받아

정부가 연 공원임장료 수입 중 10~30%의 문화재보수지원금을 지급키로 조계종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내소사 등 6개 사찰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0년 12월 11일 정부와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공원임장료수입 중 10~30%를 문화재보수지원금으로 해당 사찰에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이 11일

국립공원내 공원임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사찰 21곳의 문화재보수비를 조사한 결과 주왕산 대전사, 소백산 회방사, 월출산 도감사, 변산 내소사, 설악산 백담사, 덕유산 안국사 등 6개 사찰은 올해 문화재보수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보수지원비 요청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Advertisement for '현대' 만평 (Modern Cartoons) by Kim Yeon-min.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carrying a large sack and a small house, with the text "많은 것 얻어갑니다" (I get many things).

Advertisement for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Modernization of Buddhism).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addresses.

Advertisement for '제보받습니다' (We accept tips). It encourages readers to provide news tip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editorial staff.

Large advertisement for '천개불심' (Ten Thousand Buddhas Mind). It features a grid of images showing various styles of Buddhist robes (e.g., '장삼', '동방', '누비') and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